

# 오수 유입 줄인 마산만, 수질개선 청신호

이창언 기자 | 승인 2021.11.10

창원시 539곳 중 81.1% 개선  
"하천 수질 나아지고 있어"  
복개구간 오수 차단 등 필요

창원시 마산만을 오염시켰던 오염원 유입지점 539곳 중 81.1%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는 9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마산만 유입하천 오염원 모니터링 보고회'에서 2019~2020년 확인한 오염원 539곳 중 437곳 정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시는 2017년 민관산학과 힘을 합쳐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으로 유입되는 창원하천 오염원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시민단체는 하천 일대를 직접 돌며 오염수 유입지점을 확인했고 '오염 발생 지도'를 만들어 행정과 공유했다.

창원시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월류 방지턱과 수위계, 자동센서 등이 부착된 스마트 제어형 우수토실을 설치하는 등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시는 2019~2020년 확인된 오염원(오수·불명수·맨홀이상) 유입지점 중 구별로 의창구 95.5%, 성산구 82.6%, 마산합포구 58.3%, 마산회원구 93.1%, 진해구 86.1%, 마산합포구 58.3% 개선 작업을 마쳤다. 의창·성

산·마산회원·진해구는 연내 100% 오수 유입 차단을 하고 마산합포구에는 내년 예산을 편성해 추가 정비하는 계획도 세웠다.

창원시는 "일부 유입지점은 사유지인 까닭에 정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또 교방·회원천 주변은 노후 주택이 많아 안전상 문제로 정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하수처리시설 사용과 관련해 주민 계도를 하고 오점(우수관-오수관이 서로 잘못 연결) 정비를 하도록 계속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창원시가 9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마산만 유입하천 오염원 모니터링 보고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창원시

올해 모니터링 결과, 오수 유입지점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올해 모니터링에서 206개 오수유입지점을 새로 확인했다. 2018년 323개, 2019년 362개, 2020년 237개보다 줄어든 수치다.

창원지역 8개 시민단체(경남생명의 숲·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 협의회·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마산YMCA·마산YWCA·창원 YMCA·창원YWCA·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가들은 올해 3~6 월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으로 유입되는 40개 하천을 직접 걸어다니며 오염원 지점을 확인했다.

시민단체는 "회원·교방·하남·신이·자은천 등에서 84곳의 오수유입이 차단돼 하천 수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오래 된 아파트 우수관을 통한 세탁 오수 유입 문제는 지속적인 시민 홍보가 필요하다. 마산합포구·진해구 하천 복개 구간 오수차단·오래된 우수토 실 관리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발표 결과와 지난해 자료를 비교 분석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고 생명이 살아 숨쉬는 마산만을 만들겠다"며 "지속가능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마산만 수질 개선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마산 내만에서는 잘피 대규모 서식처가 확인됐다. 저어새 한 쌍이 봉암갯벌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과 멸종위기 해양생물인 붉은발말뚝게가 서식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창언** 기자